

經營學科의 특성과 발전 방향

郭 守 根

(서울大 經營學科)

1. 序 論

經營學이 독립된 學問 分野로서 체계화된 역사는 다른 社會科學 분야에 비하여 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복잡·다양해진 現代의 組織社會에 있어서 經營學 知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經營은 단순히 營利 企業의 경영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組織의 經營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經營은 社會·經濟的 발전과 혁신의 에이전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營學은 과거의 商學中心 體制를 代替하면서 30 여년 전부터 大學에 도입되었다. 經濟發展에 따른 社會에서의 經營學 知識의 수요 증대에 따라 經營學 教育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經營人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經營學 教育은 짧은 기간의 質的·量的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10 여년간 經營學界는 우리나라 經營學 研究와 教育의 평가와 반성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大學에서의 經營學 教育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經營學 教育이 끊임 없이 변화하는 經營 環境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人的 資源을 키우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經營 環境의 변화에 따

라 經營學 教育의 방향과 내용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는 經營學 教育의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大學의 經營學 教育의 특성을 파악하고, 經營學 教育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經營學 教育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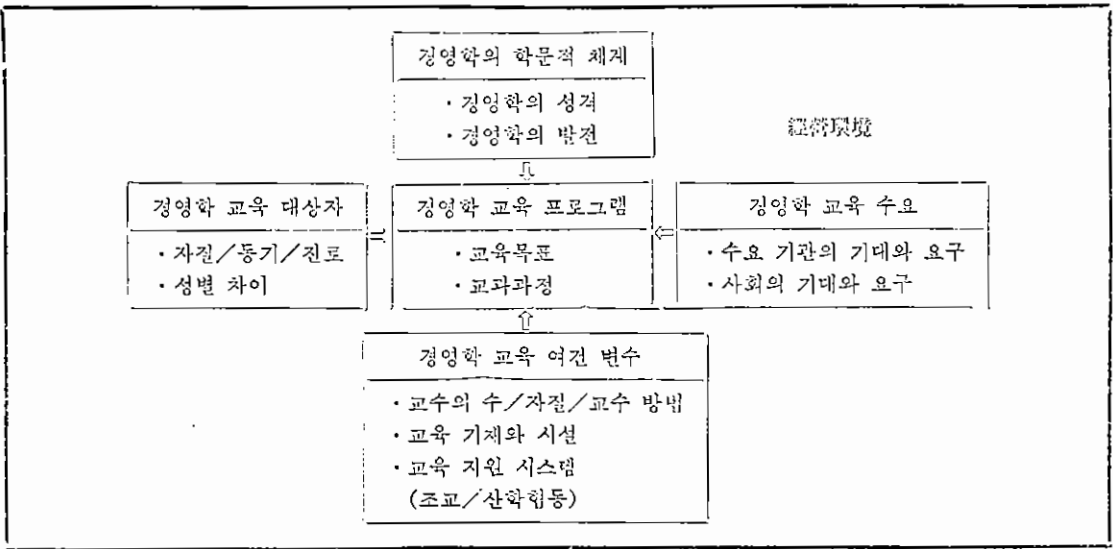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本稿는 經營學 教育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經營學 教育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本稿에서 고려한 요인들과 이들의 상호 관련성은 뒤의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經營學 教育의 現況과 評價

많은 大學들이 경영자·관리자의 양성을 經營學科의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관리자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광고 전문가 등의 專門家나 學者, 研究者, 教師를 졸업 후의 진로로서 포함시키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 있었다.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교육 목표에 포함된 내용은 다양하나, 문제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물 배양하는 데 경영학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

〈표 1〉 경영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러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 생산, 마케팅, 인사 조직, 재무, 회계 등 제반 경영 기능에 대한 지식 외에도 경제학, 행동 과학과 계량분석적 기초 지식을 대부분 열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갖고 있는 경영학 교육의 목표는 외국 대학의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명시적인 경영학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적 교육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경영학과와 설립 취지와 같은 형식으로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목표의 수립과 이의 실현 방안에 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학 敎科課程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기술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은 평균 37 개 과목의 경영학 관련 과목을 기초 필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 과목의 수는 25 개에서 52 개에 이르기까지 대학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공 필수인 경우에도 전체 대학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11 개이나 최

소 5 개 과목에서 최대 16 개 과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의 敎育 與件이나 敎育目標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편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학별로 分野別 專攻科目의 開設 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영학科가 會計學科, 經營情報學科, 保險經營學科, 國際經營學科 등으로 分化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分科의 존재가 경영學科의 分科關聯 敎科目 數의 차이를 有意的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는 會計學 과목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간의 分野別 敎科目 開設 현황의 차이는 뒤에 논의될 교육 여건에서 나타나듯이 專攻敎授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만약 敎科目 開設이 경영學의 학문적 체계나 敎育目標의 구현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專攻敎授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 균형있는 경영學 敎育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敎科目 開設 數에 있어서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間에, 또한 서울 所在大學과 地方所在大學間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特定大學들 사이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대학의 설립 주체나 소재가 경영學 敎科課程의 편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經

營學 教育의 質的 水準의 한 部分을 평가하는 데 불과하지만, 大學의 外형적 特性이 經營學 教育의 質과 반드시 關聯性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최초의 敎養科目에 대한 개편 추세를 反映하는 것으로 많은 大學들이 經營學 전공 과목을 敎양필수 또는 기초필수로서 대학 1학년 과목으로 開設하고 있다. 이에 該當되는 科目으로서 경제원론, 經營學원론, 회계원리, 經營學 産처리론, 經營수학, 經營통계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大學이 財政的인 理由 등으로 專攻 科目의 開設 學點數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開設될 수 있는 專攻科目을 늘리기 위한 方便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經營學과 學生들을 조기에 접촉할 수 있어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한 方案일 수도 있다. 그러나 經營學의 연구 대상인 企業의 活動 自體가 매우 복잡하고 多樣하여 經營學의 研究에 여러 인접 과학 분야에서의 知識들이 학문적 도구로서 活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經營學의 조기 敎育이 반드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論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 經營學科의 敎育 對象者

經營學 敎育은 敎育 대상자의 資質, 學科 選擇의 動機, 進路 方向의 選擇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經營學과 學生들의 資質은 大學간에는 어느 정도 差異가 있으나, 餘他 學科 學生들에 비해 비교적 優秀하다는 事實은 大學 入學 學力 考查의 成績을 통해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우수한 學生들이 經營學과를 선택하는 動機는 다양할 수 있으나, 經營學과 卒業生들에 대한 社會的 需要에 따른 취업의 응이성이 중요한 要因이 된다. 최근 某大學에서 실시한 新入生에 대한 實態 調査의 結果에 따르면, 經營學과 學生들은 學究的인 面보다도 未來 指向의이며 취업이 응이하다는 점을 學科 選擇의 動機로 提示하였다. 이들의 學科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結果는 타大學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經營學과 卒業生의 취업률에 대한 설문 조사 結果에 따르면 평균 70.3%의 經營學과 卒業生이 卒業年度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所在 大學이 地方所在 大學에 비해, 國·公립大學이 사립大學에 비해 약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卒業生의 進路는 製造業, 金融業, 서어비스業에의 취업과 大學院 進學이나 敎育계 進出로 나타났다. 일부 大學의 경우, 大學院 進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經營學과의 敎育 목표가 大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綜合的으로 볼 때, 經營學과 敎育 대상자들의 資質은 比較的 우수하며 경제계 進出을 위한 學科를 選擇하고 있다. 그러나 敎育 대상자들의 資質과 進路 選擇은 大學간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大學내에서도 差異가 있으므로 確立적인 經營學 敎育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4. 經營學科의 敎育 與件

經營學의 充實한 敎育을 위해서 敎수는 연구를 통한 끊임없는 知識의 축적을 도모해야 하며, 知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講義 方法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經營學 敎育의 질에 대한 影響을 미치는 敎수의 연구와 강의를 지원 하는 與件의 造成은 매우 重要하다. 敎수의 研究는 도서관, 연구비, 강의 時間 수, 조교의 연구 보조에 의해 지원되며, 강의는 敎育 기제, 사례 연구 자료, 강의 時間 수, 조교의 보조 등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연구와 강의를 위한 與件을 學生對 敎授의 比率, 分野別 敎授 數, 平均 講義 時間, 助敎의 數 그리고 敎育 施設의 順序로 고찰하고자 한다.

1) 學生對 敎授의 比率

손태원·권태형 敎수(1989)의 분석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87년까지 經營學 분야의 敎育 대상자 수의 增加는 약 3.7배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大學生 수의 2.5배 增加, 社會 계열 全體 大學生 수의 3배 增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의 교수 인력의 증가는 學生 數의 增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절대 부족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1987년도의 경영 계열의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은 教授 1人當 103.8名으로서 1983년도의 84.2名에 비하여 오히려 惡化되었으며, 이는 같은 연도의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教授 1人當 學生 數 34.5명에 비하여 볼 때 매우 열악한 水準이다. 선진국이나 공산권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교수 1인당 25명을 상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의 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영학과 學生들은 비슷한 등록금을 내면서도 타과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教育'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인 기업에서 必要한 人力을 경영학과에서 教育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投資가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2) 分野別 教授 數 및 講義時間

경영학은 계속적으로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경영학 교수의 절대적인 不足으로 경영학 교수들은 水準이 다른 學科들은 들뜬 전공 분야 이외의 科目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設問 조사에 의하면 주요한 分野의 전공 교수를 보유하지 못한 대학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非公式的인 集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약 16시간을 講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영학 교육평가기관인 AACSB(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가 교수들의 주당 12시간 이상의 講義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교육 여건의 位置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경영학과의 교수들은 '다과목·다시간의 강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3) 助 教

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학과는 平均 3.8名の 助教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한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1~2名の 助教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욱이 대부분이 행정 보조용 조교로서 교수의 연구 보조용 조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의 不足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하여 석·박사과정에 있는 大學生들을 적극적으로 活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教育施設

정보 기술의 발전과 산업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경영학 교육에서 컴퓨터 教育의 重要性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調査에 의하면 조사 대상 대학 중 30% 정도에 이르는 대학이 대형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학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利用 없이는 경영 전산 처리나 정보 시스템 등 特定分野의 知識을 效果的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 大學의 경영학과 교육의 興件은 良質의 教育을 提供하기에는 매우 不足하다. 教育 興件의 改善이 없이는 경영학 教育方法의 改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現在의 興件下에서는 강의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게 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토론식 강의나 사례 분석의 活用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수의 充員과 교육 시설의 擴充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現在의 대학의 재정 상태나 문교부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興件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도른다. 그러나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공계나 예술계, 심지어 다른 人文·社會系 學生들과 비교하여 볼 때 제공받는 교육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費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학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投資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環境 變化와 經營學科의 發展方向

기업과 모든 경제 조직들은 끊임없이 變化하는 環境에 적응하지 않으면 存續·成長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경영학 교육은 環境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미래 사회의 經營人을 양성하기 위하여 社會의 變化를 예측하고 社會의 期待와 要求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經營學科 教育에 대한 社會의 變化와 要求에 대한 論議를 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경영학 교육이 發展되어야 할 方向을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 條件으로 區分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經營學科에 대한 社會의 期待

(1)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의 강조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기업이 개별 경제적 單位로서 독자적인 利潤단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앞으로의 企業은 社會經濟의 이고 巨視的인 經營 活動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消費者인 國民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보다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기업은 사회경제적인 次元에서 이해 관계자 집단을 조정해야 하고, 국민경제 성장의 主役이 되어야 하며, 國民의 일상 생활과 公共秩序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과 사고들은 경영학에서 앞으로 계속 강조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구조가 다원화되고 세분화되는 가운데 선진 산업 사회로의 發展을 위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교육의 量的 擴大와 質的 向上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社會的 制度가 바로 대학교육이며 이 대학교육은 國家 發展을 위한 인적 資源의 개발에 주도적인 役割을 담당해 왔다. 특히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重要性이 높아지고 계속적인 量的 擴大를 가져온 분야가 經營學 分野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경영학이 도입되고 경영학이 設置된 이후에 경영학 교육과 연구는 量的·質的 成長을 계속하여 왔지만, 서구의 理論을 습득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文化와 價値 속에서 경영 조직의 여러 現象을 설명해 주고 우리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經營上의 問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韓國的 經營理論의 개발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적 경영 이론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믿어지며, 경영 이론의 需要者인 경영자와 학생들에게 이바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국제적 시각의 배양

우리나라 기업은 輸出 企業의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현지 합작 사업이나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제 기업으로서의 경영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업은 商品의 국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인력, 자본, 기술, 용역의 국제적 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國際的 經營活動을 계획·조직·통제할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경영학 교육에서 기업의 國際的 活動에 대한 폭 넓은 이해는 물론 이에 대한 專門的 知識을 體系적으로 習得하도록 함으로써 現代的 經營者가 갖추어야 할 國際的인 經營 眼目을 함양시킨 것이 요구된다.

(4) 정보 기술의 이해와 활용 능력의 배양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企業 經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 기술은 경영자에게 잠재적으로 강력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기업들에게 競爭的 優位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社會 環境은 情報化의 방향으로 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부응하는 기업 역시 情報技術을 組織에 신속히 도입하여 情報 處理와 意思 決定에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情報技術을 商品化하여 이를 중심으로 産業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이해 없이는 오늘날의 기업 조직을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발, 정보 기술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된 교육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사례 중심의 실질적 지식의 습득

사례는 실제의 경영 상황을 설명해 주는 資料로서 조직과 경영 활동에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사례를 다룸으로써 실제 경영에서 얻는 것과 흡사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게 된다.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론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一般化되어 있지 못한 經

함의 知識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보다는 事例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事例 중심의 교육으로 현실감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分析力과 綜合的인 思考力이 충분히 개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經營學科 教育 프로그램의 改善方向

(1) 교육 목표의 정립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 교과과정, 교수진 및 교육 방법이 내적 일관성을 갖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設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목표의 設定이 꼭 필요하다. 교육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할 경우, 그 교과과정은 교수진 및 교육 여건에 지나치게 구속을 받아 便宜的이기 쉽고 未來指向的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부족한 교수진을 확충하여 교육 방법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업 및 기타 수요 기관의 욕구 반영

경영학과 卒業生을 필요로 하는 需要 機關은 영리·비영리 기업을 포함하여 매우 多樣하며, 이러한 수요 기관들의 卒業生에 대한 期待 欲求 또한 매우 多樣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경영학 교육은 수요 기관의 欲求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학과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큰 問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학과가 계속 수요 기관의 欲求를 무시한다면 수요 기관은 경영학과 졸업생에 대한 채용 비율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인력을 다른 학과에서 충원하려 할 것이다.

수요 기관의 欲求를 把握하는 것은 다른 학과와의 競爭 側面에서뿐만 아니라 각 大學 경영학과 간의 競爭 戰略 수립에도 중요하다. 즉 각 대학의 경영학과는 독특한 자원, 능력, 입지 조건에 따라 특정 수요 기관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差別化하거나 수요 기관 전체의 일반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문 체계의 유지 및 발전

경영학의 學問的 體系를 維持·發展시켜 나가

는 것은 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못지않게 중요한 大學의 使命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경영학과의 교과과정은 경영학의 學問 體系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학의 학문 체계를 연구·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인재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영학과 교수들의 욕구가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지 특정 교수 개인의 학문적 배경과 특성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교수의 意見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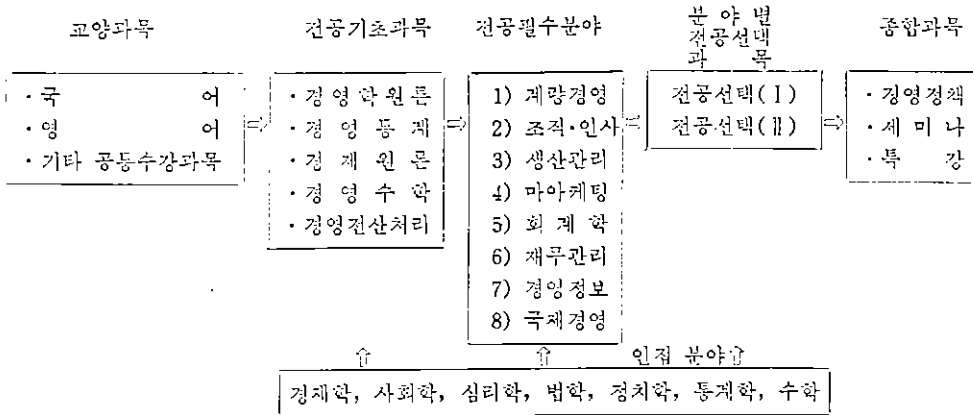
또한 경영학과의 교과과정은 미래지향적인 觀點에서 경영학의 發展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종래의 경영학과 교과과정은 미국의 관타론적 경영학의 영향을 받아 기능별(생산, 마케팅, 인사 조직, 회계, 재무 등)로 나누어져 분야별로 몇 개의 과목을 이수케 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각 分野에 대한 專門性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기업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리기능적 여러 분야를 統合해 주는 교과목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銀行, 保險機關, 觀光業體 등의 欲求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差別化시키기를 원하는 대학은 종래의 기능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독일식의 제도론 중심의 敎科科目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적 경영학 이론의 확립 및 국제화
지금까지의 경영학 교육은 서구의 理論을 習得하여 가르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한국적 경영이론을 開發하지 못하였으나, 경영학의 實用的 價値를 생각할 때 한국적 경영학의 定立은 절실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적 經營現象을 깊이 있고 現實感 있게 다루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또한 韓國 社會의 開放化 및 國際化 現象에 따라 經營學 敎育은 韓國의 特殊한 狀況에서 국제 경영 현상 및 국제 기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擴張되어야 할 것이다.

(5) 경영학 교과과정의 체계화

이제까지의 경영학과의 교과과정은 각 大學의 特殊한 事情에 따라 多樣하게 編成되어 왔다. 그러나 경영학 교육은 대학별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體系上的 共通性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각 大學의 교과과정은 一定한 基本的 틀 속에서

〈표 2〉 경영학과 교과과정의 체계



교육 목표, 교육 대상자,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設計되어야 한다. 이러한 體系上의 共通性은 前述한 경영학의 학문적 체계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여 계속적인 論議를 통한 학계의 合意를 얻어야 한다.

위의 〈표 2〉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경영학과 교과과정의 체계화를 시도해 본 것이다. 교양과목은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체육 등 모든 大學生들이 共通的으로 受講하는 科目이다. 전공 기초 과목은 경영학과 學生들이 경영학 專攻 科目을 受講하기 위하여 基礎的으로 이수해야 할 教科目들로서 大學에 따라서는 계열필수, 기초필수, 공통필수라는 명칭으로 개설되기도 하는데, 경영학 원론, 경제원론과 같은 기초 이론 과목과 경영수학, 경영통계, 경영전산처리와 같은 기초 도구 과목으로 區分될 수 있을 것이다. 전공필수 과목은 어떻게 分野를 區分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1~2 과목으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을 다루게 된다. 전공 선택(I)은 어느 특정 분야에 치중하기보다는 경영학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일반 관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분야별로 3 과목 정도가 될 것이다. 전공 선택(II)는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수할 細部 전공 科目으로서 대부분이 고급 과목들

이며 각 대학의 여건과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과목들이다. 인접 분야 과목들은 경영학의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서 경영학과에서 개설하거나 해당 학과에서 개설된 科目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과목은 경영학 여러 분야의 知識을 포괄적으로 整理하고 이용하는 科目이다.

6. 經營學科 教育與件의 改善方向

아무리 훌륭한 교육 목표와 교과과정이라도 이것을 교육으로 實現化시키는 條件이 성숙해 있지 못하다면 허황된 計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교육 여건의 改善 없이는 實質的 知識과 合理的 意思決定 能力을 갖추고 정보화 시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人材에 대한 社會的 需要를 充足시킬 수 없을 것이다.

1) 教育方式의 改善

우리나라 교육은 試驗 爲主의 教育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취직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實情이다. 注入式이며 暗記爲主의 教育을 받은 學生이 社會에서 요구하는 創意的이고 分析的이며 리더십을 갖는 경영자로 成長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에서는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의 培양을 위하여 토론식 강의와 사례 연구를 바

탕으로 한 實質的 教育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2) 教育 機材의 導入

現代 經營學 教育의 가장 큰 變化는 컴퓨터의 導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教育을 提供하기 위해서는 教育과정에서 컴퓨터를 活用한 教育과 실습이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의 부족은 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대학에서의 컴퓨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教授의 充員 및 講義時間 數의 縮小

과다한 강의 시간은 研究는 물론이고 강의의 질적 수준도 저하시킬 것이므로 교수 충원을 통한 강의 시간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多時間·多科目의 講義' 狀況下에서는 경영학과 교육의 질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4) 產學協同의 強化

실질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產業界나 大學은 각종 知識과 情報를 交換하여야 한다. 산학협동의 實質的 活性化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學生들이 인턴 형식으로 기업에서 修習을 하고 이를 대학에서 學點으로 인정하는 制度가 講究될 수 있다. 이는 학생이 대학에서 배운 理論에 實質的 經驗을 補充할 수 있으며 社會에 進出하기 이전에 事前知識을 갖출 수 있는 最善의 方案이다. 企業은 휴가 기간 동안 부족한 人力을 學生으로 充當할 수 있으며 人材의 사전 발굴 및 확보할 수 있는 長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이 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및 教育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資料를 利用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제도적으로 사례 연구 센터와 같은 대학 공동 연구소를 設立하여 각 기업체에서 協調를 얻어 사례 연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要約 및 結論

본고는 경영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영학 교육의 發展 方向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영학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교육 여건에 대한 現況 分析을 하여 경영학 교육의 현재 위상을 評價하고, 急變하는 경제사회 환경의 變化와 사회의 경영학 교육에 대한 期待와 要求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경영학 교육의 發展 方向을 導出하고자 하였다.

경영학 교육은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양적·질적 成長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의 學問的 發展과 社會的 期待와 要求의 變化에 부응하는 데는 未洽하다고 評價된다. 따라서 發展된 산업사회의 도약을 위해 要求되는 우수한 人的 資源을 양성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교육의 方向과 內容이 變化되어야 하고 教育與件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학과 교육의 方向은 대학의 교육 대상자와 사회의 기대를 反映하여 교육 목표로 明示的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經營學 教育의 內容은 學問 體系와 大學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體系적으로 設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經營學科 教育의 質的 向上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열악한 교육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학과에 비해 '값싼 교육'을 提供하고 있는 現在의 教育與件을 개선하지 않고는 경영학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학의 學問的 發展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경영학은 점점 더 細分化되고 專門化되는 추세에 있으며, 경영학 교육에 대한 社會的 需要도 점차 差別化되고 있어 경영학과도 여러 관련 학과로 분과화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영학의 세분화로 인접 학문과의 상호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영학과 교육과정의 編成에 있어서 전공·인접 학문·교양 분야 사이의, 또한 경영학 自體內의 전공 분야들 사이의 比重을 어떻게 均衡있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경영학과의 교육을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등의 분과 학과의 교육과 어떻게 差別化시킬 것이냐의 問題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問題들은 한두 사람의 연구 노력에 의해서보다는

경영학계全體의 지속적인 研究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영학과 교육의 문제는 經營學科 教育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要因들의 分析·評價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경영학과 교육의 發展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영학계의 結集된 研究 努力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金正年 外, 韓國經營學 30年一回顧와 展望,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8.

孫泰元·權泰亨, 經營學 分野 教授人力 需給에 關한 研究, 韓國經營學會 發表論文集, 1989.2.

亞洲大學校 綜合研究所, 經營學 分野 教育課程과 教授要目の 開發, 1981.6.

韓國經營教育委員會, 經營學 教育의 評價 및 發展 研究, 1980.12.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The Changing Expectations of Society in the Next Thirty Years*, Windsor Castle Colloquium, 14th~16th February, 1979.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ccreditation Council Policies Procedures and Standards: 1988~'89*.

Porter, L.W. and L.E. McKibbin, *Manage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Drift or Thrust into the 21st Century*, McGraw-Hill Book Company, 1988.